

대한전자공학회

학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자

2006년은 대한전자공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런 뜻 깊은 해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얼마 전에 어느 광고회사 작가로부터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성공하였는데, 왜 서울대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100위권에 못 드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서울대에 재직하는 교수의 한 사람으로 공색한 답변을 늘어놓으며 마음이 언짢았던 적이 있다. 물론 그 후에 나온 신문기사에서 서울대가 여유 있게 100위권 이내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동종 업계에서 갖는 경쟁력만큼 서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과연 대한전자공학회가 학회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라고 같은 질문을 대한전자공학회에 던져본다. 그 답은 분명히 “아직은 아니다”일 것이다.

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의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우선은 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양과 질이 국제적인 척도로 볼 때 얼마나 우수한가이다. 대한전자공학회의 경우 통신, 반도체, 컴퓨터, 신호처리, 시스템 및 제어, 산업전자 등의 6개 분야로 논문지가 발간되며,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학회가 관련분야의 산·학·연이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관련 기술의 보급,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한 교육문제 및 전문인들의 개인적인 교류의 장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전자공학 및 전자산업 분야는 그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국내 IT 산업의 근간이 되면서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통신,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학술대회 이외에도 매년 10~20회의 기술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 기술워크숍은 현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에게는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기회가 되며, 대학원생들에게는 산업현장과 관련한 실용성 있는 기술을 전문가로부터 손쉽게 전수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나 수준은 곧바로 우리 나라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한 전자공학 분야 교육에 관해서는 그 동안 대한전자공학회에서 매년 전자공학교육 워크숍을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이라는 문제의 특성상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공학교육인증 문제가 전국에 걸쳐서, 또한 공학 전문분야에 걸쳐서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전자공학회가 좋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회가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아직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특히 전자공학회 경우 산업계 인사들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계속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산업현장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학회활동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산업계에 계신 여러 회원들께 가능한 한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필자가 서두에 스스로 질문했던 “대한전자공학회는 얼마나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라는 문제로 되돌아가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필자가 소속해 있는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에 신입 젊은 교수가 부임하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원이 되기를 권고한다. 그들 거의 전부가 세계 제1의 전기·전자공학 학회인 미국의 IEEE의 회원이기는 하나 우리 대한전자공학회 입회원서를 쓰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회에 가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대한전자공학회가 미국의 IEEE와 공동으로 40세 이하의 훌륭한 국내 연구자에게 ‘Joint Award’ 를 시상하기로 하고, 이미 공고를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학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ST



글 | 성광모 _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서울대 전자공학부 교수